

## 학교시설 등을 지역민과 공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인천시 지역공동체과  
2018. 4. 10.

대구시 문화콘텐츠과  
2018. 4. 11.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2018. 4. 26.

### 인천시, 빈 교실에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

인천지역 내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빈 교실과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생·교사·지역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인프라 '마을공동체 어울터'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한은행이 마을공동체 어울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된 배경 중 하나로 눈에 띄게 줄어든 학생 수를 들 수 있다. 동구·남구·부평구·계양구 등 4개 구의 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800여 개의 빈 교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학교 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지역과 학교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와 마을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등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올해의 추진성과, 학교 및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내년에는 해당 사업을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뜻 또한 밝혔다.

### 대구시, 동네서점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

대구시는 서점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대구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대구 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소형 서점 5곳을 선정하여 문화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며, 선정된 서점에서 저자 초청 강연회를 비롯하여 그림책 전시회와 시 낭송회 등 다양한 독서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점시설 지원을 통해 대구 지역 서점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서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서점과 지역출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전북도,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 운영

전라북도체육회가 '2018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의 대상학교 8개 시·군 17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보유한 체육관을 평일 방과 후, 휴일과 같은 유휴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학생들 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을 매개로 지역 사회와 학교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